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금산 스님



금산(金山) 스님은 수좌다. 청정비구로서 바라보기만 해도 존경스러운 수행자다. 언제나 만나면 마음이 의지가 되는 도반이라 나는 스님이 머무는 수원포교당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출가하기 전, 우리는 수선회(修禪會)라는, 좌선을 배우는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그냥 그 시절엔 스쳐 지나는 인연이었지만 수선회에는 해마다 출가하는 도반들이 있었으므로 자연히 출가 후에도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좌선을 계기로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각기 학승, 포교승, 주지 소임을 살고 있지만 금산스님은 일구월심 오로지 좌선만이 법인 사람이다. 그가 안거를 떠날 때 우리들은 그가 이번 철에도 변함없는 정진으로 확철대오할 것이란 믿음을 가졌고, 해제하여 돌아오면 그 불탔던 구도의 에너지가 우리에게도 스며들기를 바라며 만났다. 금산스님은 '타고난 수행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진에 열심일 뿐더러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을 만나면 화두와 좌선에 대해 밤을 새워가며 조근조근 일러준다. 공부에 대한 열망의 흔적을 조금만 보여도 그 사람은 스님에게서 확실한 수행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받는다. 곁에서 듣다보면 아주 오랫동안 들어왔던 공부법인데도 새삼 신이 나고 어 달포전 스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스님, 장좌불와랑 일종식 하면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고 힘들 때는 언제였어요?" "그냥 하는 거지, 뭐. 일상생활!" "아니 그래도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잠이 많으니 잠을 줄이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밥을 자주 먹으면 자꾸 잠이 오니 밥도 줄이고 하다보니 여기까지 왔지. 몸뚱이는 길들이기 나름인 걸. 지금은 아주 편안해요. 화두가 특별히 성성하게 들린다고 하기보다는 화두를 챙겨들고 있는 시간이 많아진 셈이니 성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

힘든 수행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스님의 말을 들으니 더 이야기 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난 스님이 망상에 휘둘리지 않고 화두가 밤하늘 별처럼 맑게 들릴 것이라고 믿고 있다. 화두가 들리는 그 순간의 느낌을 전해 받고 싶었건만 스님은 끝내 그 느낌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물론 나도 묻지 않았다. 보나마나 스스로 해보기 전에는 모를 일이라고 할 테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



은 실재의 영역으로 뚫고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고, 깨달음을 이미 얻은 사람은 그 실재를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한다. 깨달음을 얻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자유롭게, 집착하지 않고 표현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고 본다.

일종식하는 스님을 보며, 나도 한번!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제 자리로 돌아온 나는 아쉬운 대로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달마관심론〉을 읽어본다.

"음식을 끊는 것은 무명악업을 끊는 것이다. 미혹한 이들은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방종히 하여 온갖 나쁜 업을 지으며 정욕을 마음껏 탐내어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오직 밖의 음식만을 끊으면서 재계를 지킨다 하니 어리석은 아이들이 썩은 시체를 보고 산사람이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오"

아마 금산스님은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시는 것 같다. 어리석은 나는 이를 깨닫는데도 참 오래 걸렸건만 스님은 오래전에 이 도리를 깨달으셨으리라. 어려운 수행에도 길림 없는 수좌의 참모습으로 살고 있는 스님이 부러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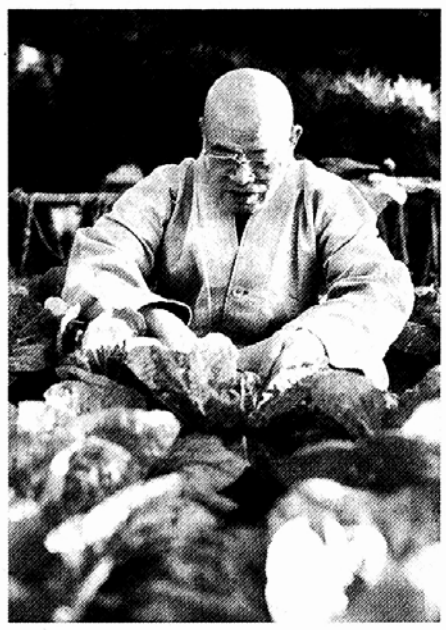
▨서울 반야사 주지

고산스님은?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은 강사, 율사, 포교사, 선사, 법사로 활동이 왕성하다. 통영 연화사, 부천 석왕사, 부산 혜원정사를 오가며 법문을 하는 것을 비롯 각종 행사에서 대중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1932년 울주에서 태어난 스님은 13세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출가의 인연이 되었다. "관음전에 가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어머니를 만나게 해 주겠다"는 동산스님의 말씀을 듣고 46년에 출가를 한 스님은 관세음보살님을 수도 없이 불렀고 기도중에 어머니로 화한 관세음보살을 여러 차례 친견했다고 한다. 그 일을 계기로 더욱 발심하게 된 스님은 동산스님을 계사로 48년 사미계, 56년 비구계를 수지하고 61년에 직지사 강원 대교과를 수료했다. 이후 제방 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하고 조계사, 은해사, 쌍계사 주지와 조계종 호계원장,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연화사, 석왕사, 혜원정사를 창건했을 정도로 불사에 남다른 원력을 보이신 고산 스님은 〈대승기신론 강의본〉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길〉 〈선 깨달음의 길〉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스님은 내년에 칠순을 맞아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순 우리말로 노래한 시집을 출간할 예정이다. 고산 스님은 주로 부산 혜원정사에 주석하며 대중들을 제접하고 있다.



◇염불 · 법문 · 농사 · 요리 · 건축 등 못하시는 것이 없는 고산 스님은 배추밭도 손수 만들어 실하게 가꾸어 놓았다.

해서 성불하라고 배웠고, 고봉스님께서는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진리를 배워 강사로 후배들을 가르치는 길을 열어주셨고 석암스님께서는 율을 전수시켜 보살계를 설해 불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기본을 주셨죠. 세분 스승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보니 어느 것 한가지들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교입선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게 되었지."

나 아니라도 할사람 많아

스님은 행자시절부터 70이 다된 지금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결코 게으르지 않았다. 따라서 스님은 요리, 건축, 농사, 염불, 법문 어느 것 하나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것은 배울때 마다 최선을 다해 소홀함 없이 정성을 다해왔기 때문이다.

"처음에 입산해서 행자생활 할 때 아주 힘이 들었지. 사미계를 받고 공양주 채공노릇을 8년 했는데 그때도 눈물이 나도록 혼도 나고 아주 어렵게 했어요. 공양주를 하고 있을 때 불 잘못 땐다고 엉덩이를 걷어차여 부뚜막에 이마를 부딪치기도 하고 또 밥 잘못했다고 주걱으로 흥부가 놀부 쳐에게 맞듯이 그렇게 맞기도 했어요. '입에 든 혀는 물릴 때가 있어도 스님 상좌는 물릴 때가 없다'는 절집안 속담이 있어요. 그 말은 입안의 혀보다 더 날쌔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지.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으니 늘 야단을 듣게 되고 그럴 때는 어려움이 많았어. 그러나 그 시절에 분별 없이 열심히 익힌 것이 지금의 토양이 된 셈이지."

스님은 요리를 아주 잘한다. 한창 공부할 때는 궁중요리 책까지 사서 실습을 해가며 연구를 했다. 요리 한가지를 배우고자 청을 드렸더니 송이장조림 만드는 법을, 양념의 종류, 조리 시간, 불의 세기 등을 아주 상세하고도 일목요연하게 일러주신다. 또한 '도목수'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각종 불사에서 스님께 자문을 구하는 목수가 많다. 목수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 도목수 소리를 듣는 스님이고 보니 망치나 일체 도구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문이 고장나면 직접 망치로 몇 군데만 때려도 금방 고칠 수가 있다. 방문을 열면 보이는 한평 남짓한 배추밭도 스님이 손수 만들어 가꾸고

> "농부든 학생이든 자기가 하는일 최선 다하면 그것이 道의 길"

있는 것인데 농약도 쓰지 않았는데 배추속이 아주 알차고 여물다.

"연화사에서 호박 농사를 지었는데, 호박 한 구덩이 심어서 한 자리에서 250개까지 따먹도록 만들었거든. 한번 심어 평균 250개를 따먹는다면 사람들은 다들 놀라지. 그 비법은 조용히 특강을 해야지, 공개하면 안되지. 허허!" 스님은 비법이라고 하시지만 실은 그 비법이라는 것이 불법을 통해 터득한 지혜로 세상사 전반을 관통하는 이치를 알아버린 때문이니 비법도 아닌 셈이다. 스님이 늘 공개하고 있는 법문 속에 모두 들어있는 까닭이다. 스님의 소소한 일상사에서 보여지는 철처함은 상좌들과 신도들을 이끄는 말없는 경책이 되고 있다.

현재에 철저하면 그속에 참선의 기초가 있다는게 스님의 주장이다. 염불할 때, 길을 걸을 때, 밥 먹을 때, 모두 그것을 하는 놈이 무엇인가만 참구하는 것, 마음자리를 뚜렷이 인식하라는 말씀이다.

"몸뚱이 운전해 가는 운전사를 일컬어 주인공, 혹은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자기의 이 마음을 터득하는데는 그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을 하는 주인이 무엇인가를 참구해야 해. 그것이 바로 참선이야. 부모에게 이 몸 받아 태어나기 이전의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 몸뚱이 이끌고 다니는 이놈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참선이거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시심마니 무니, 마삼근이니 하면서 천 칠백가지가 있지만은 천 칠 백가지만 있는 것이 아냐. 수 만가지도 더 있어. 아침에 죽이 멀겋더라, 너는 왜 항상 하던 일만 하느냐 등 의심을 내게 하는 것이면 어느것이든 화두라는 말이예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에서 참선 아닌 것이 없고, 화두 아닌 것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도인이라 하면 요술을 부리거나 신기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도인의 경지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도(道)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 아닙니까? 농사짓는 길, 학생이 공부하는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환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의 경지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도리를,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도리를, 교직자는 교직자의 걸어갈 길을 환히 아는 것이 바로 도야. 그런데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걸어가야 할 길을 환히 아셨으니 사생의 자부요,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헤매고 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환히 알고 가면 좋으련만 무명에 가려 길도 아닌 길을 내달리고 있는 형국이니 스님의 길 안내가 더욱 값지다.

욕심 비우고 첫마음으로

"세상의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많아서 종잡을 수가 없는데 내가 한가지 꼭 짚고 싶은 것이 있어. 정치인들이 명예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두고 세상사람들은 저 사람이 명예에 미쳤다고 표현을 하지? 정치인은 명예욕에 탐착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돈에 미쳐 있어. 돈에 탐착해서 정신이 없다 말이지. 이러한 정신 이상을 고치는 게 급선무야.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 정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음식에 비유하면 어느 한 부분의 맛만 강조되어 제 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아. 그러니 고쳐야지. 초발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그 뜻이예요. 한 쪽으로 치우진 것을 바로 잡아 욕심을 비워내고 첫마음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라가 정상 궤도에 오르고 세계가 평화스러워지는 길이 열리게 돼요."

심행(心行)은 일장몽(一場夢)이요 (마음의 작용은 한바탕 꿈이요)
식심(息心)은 즉시교(卽時覺)라. (마음을 쉰 것은 곧 꿈을 깬 것이라)
몽교일여중(夢覺一如中)에 (꿈과 생시가 한결같은 가운데)
심광(心光)이 조대천(照大千)이로다. (마음 광명이 삼천대천세계에 비추는도다)

스님이 게송을 읊으신다. 중생들에게 꿈에서 깨어나 자기의 길을 직접 걸으라고 일러주시는 게송이다. 그래야 나는 누구인가 하는 화두를 타파하고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추는 마음 광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일종식 · 장좌불와 수행 걸림없는 수좌의 모습

재미가 솟도록 스님의 설명은 자상하다.

8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스님은 장좌불와(長坐不臥)와 일종식을 하고 있다. 편히 누워 자지 않고 앉아서 화두를 챙기며 부처님처럼 하루에 한 번만 음식을 먹는다는 것, 수행자들이 언제나 도전해 보고싶은 수행법이지만 사실 그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닌지라 대개는 엄두를 못낸다. 장좌불와와 일종식을 한 처음에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꺼칠해지며 윤기라곤 찾을 수 없고 몸은 마를 대로 말라 걱정스럽더니 지금은 몸에 익은 때문인지 편안해 보인다. 장좌불와를 하는 금산스님 이야기를 어떤 이에게 했더니 그가 의심스럽다며 "장좌불와라 … 대단해. 그런데 장좌불와 하는 이들은 평소엔 앉기만 해도 마구 졸고 있더라. 차라리 잘 때 자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스님은 어찌 생각하는가? 난 너무 지나치면 괴각이라는 생각이 들어."

"장좌불와는 분명히 힘든 수행입니다. 그것은 단지 잠으로부터 몸을 조복받아 화두를 놓지 않으려는 수행이라 생각해요. 만약에 잠은 물론, 조는 것조차 조복 받았다면 그건 장좌불와가 아니라 장좌불와인 동시에 불면이기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난 장좌불와 하는 스님들의 타오르는 구도력을 존경합니다. 우린 그렇게 못하는 입장이고 도전도 못했잖아요." 그날 우리는 해가 떨어질 때까지 장좌불와의 장단점을 놓고 설왕설래 했지만 난 정작 금산스님의 말을 듣고 싶었고 드디

마음 밝히는 책들 3
숭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 ?

숭산 행원 선사(崇山 行願 禪師)

숭산 큰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고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66년 일본에 홍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홍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숭산 큰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숭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가는
큰 의심덩어리!

부처님께 재를 털면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훅 불 때,
네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